

老 시인에게 詩는? ... 생활이자 삶을 사는 힘

박후식 시인 광주일보 신춘문에 등단 40년 '변경에 핀 풀꽃' 펴내

“시는 생활이고 사유의 궁극적 지점입니다. 삶을 사는 힘이자 앞으로의 생을 버티는 힘이기도 하지요.”

노(老) 시인은 시에 대한 철학이 단순하면서도 분명했다. “시가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늘 시를 생각하고 세상과 사물을 시인의 관점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올해로 광주일보 신춘문에(1978) 등단 40년째를 맞은 박후식(82) 시인. 박 시인이 이번호에 펴낸 다섯 번째 시집 ‘변경에 핀 풀꽃’(문학의 전당)에는 그동안의 시적 여정이 오롯이 응축돼 있다.

1978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교실에서’가 당선돼 문단에 나온 박 시인은 문학적 성취에 비해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를 잘 아는 이들은 서정적인 어조에 깊은 깊이와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전업작가의 길을 걸었다면 문학사에 빛나는 시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전체적인 시의 정조가 어린 시절의 정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향을 모티브로 한 시들은 산업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성과 사유가 몸으로 체득했다는 방증이다. 시에 깃든 정서와 어조는 지문과도 같아서 작품의 본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요인들이다. 그것은 시인이든, 소설가든, 아니 대부분의 예술가의 작품에서 보이는 특유의 개성이라고 할 수

완도에서 태어나

전남 곳곳서 교직생활

남도의 그림움·서정성 담아

고향을 노래한 토박이 시인

있다.

박 시인은 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대학은 공주사대를 졸업했고, 이후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 교직생활 대부분을 광주와 목포에서 보낸 남도 토박이 시인이다.

그의 시에 남도의 정서인 ‘그림움’과 ‘서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은 유목적 삶과 무관치 않다. 떠돌이 기질보다 학업과 직장을 위해 거처를 옮겨야 했던 삶, 그리고 시를 바라보는 특유의 자의식과 인식의 틀이 남도의 정서와 맞물린 결과인 듯하다.

“가끔씩 어깨 위를 누르는 돌아보면/ 그것은 바람소리가 물소리/ 봄이면 친구처럼 민들레처럼 다가왔다/ 가을이면 저만큼 물러나 서 있는/ 기억의 다리 저쪽으로/ 웃음꽃 감추고 돌아서는 눈빛 보았지...”(‘기억의 다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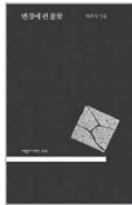
시인은 사소한 일상일망정 오래도록 사유하고 바라봄으로써 독특한 시적 세계를 구현한다. 시집을 관통하는 ‘바라봄’의 태도는 깊은 사유와 서정적 리듬



과 맞물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그러나 그의 시를 그림움이라는 정조에만 한정하기에는 스펙트럼이 자못 넓다. 넓은 만큼 서사적이며 시사적인 주제를 폭넓게 아우른다. 표제시 ‘변경에 핀 풀꽃’은 대표적인 시가운데 하나다.

“겨래의 강이 흐르는/ 북방 끝자락/ 어쩌다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끝내 그러다가/ 내 생애 가장 미숙한 말, 잘 있어/ 공허한 그 한마디 풀밭 언덕에



남기고 돌아설 때 / 꽃잎 위에 우박처럼 내리던 안개 비/ 사랑하던 꽃이여/ 파리한 너의 매무새여...”

시에서 ‘변경’은 두만강과 같은 접경지를 뜻한다.

건너지 못한, 건널 수 없는 공간이지만 그 너머에 ‘풀꽃’이 피어 있다. 박 시인은 “풀꽃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의미를 함의한다”고 밝혔다.

시인은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던 고 윤삼하·박봉우 시인이 동년배 시인들이다. 박 시인은 “그들의 시에 재래된 역사와 민족의식 등에 자극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창작의 길로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시인은 해설에서 “박후식 시인의 ‘언어’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깊은 속을 들춰내고, 사물 자체의 공백을 채워주며 그것들의 원근을 새롭게 재구성한다”며 “운영과도 같은 이 ‘바라봄’의 시작(詩作)은 그가 시인으로서 추구했던 40여 년의 깊이가 통찰이며, 극도로 숙련된 실존의 표상들”이라고 평했다.

한편 박 시인은 고희여중·화순중 등에서 교장을 역임했고,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바다 그리고 사랑’, ‘손님’ 등을 펴냈으며 한국문인협회·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문학회 및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뮤지컬 ‘베토벤 vs 모차르트’

4월 28일까지 동산아트홀

‘노래와 이야기, 미술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배운다.’

클래식 음악을 낯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족 뮤지컬 ‘베토벤 vs 모차르트’가 오는 4월 29일(매주 목·금 오후 3시)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뮤지컬 ‘베토벤 vs 모차르트’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마술과 루돌프 이야기 속에 친근하게 담아냈다.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컨셉이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꼬마천사가 말하는

피워 루돌프로 변해버린다. 어린이 100명의 소원을 들어주면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꼬마천사의 마지막 임무는 음악천재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다는 어린이 베토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

한편,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싶은 악당 밤비노는 모차르트의 악보를 훔치기 위해 마법을 써서 모차르트의 집에 숨어 들어가고, 공연까지 망칠 음모를 계획한다. 이 사실을 알아버린 베토벤과 루돌프는 모차르트의 악보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데...

공연은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며 만 5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시에만 입장할 수 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360-84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245개 단체에 22억여원 지원

전남문화관광재단이 ‘2017년 지역문화예술포럼 지원사업’ 대상 단체를 발표했다. 올해는 245개 문화예술단체(개인 포함)에게 총 22억4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역문화예술육성 194건,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 6건, 국제문화예술교류 8건, 공연작품제작 6건, 남도문화예술특성화 9건, 창작센터 운영지원 8건, 청년예술 육성 13건, 기획자 양성 1건이다.

올해는 유류공간 활성화를 위해 창작센터 운영지원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남도문에 르네상스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다.

또 지원사업 휴식년제 적용을 통해 신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대폭 늘렸다. 103개 단체가 신규로 선정됐으며 전체 42%를 차지했다. 이밖에 청년예술가육성사업 확대, 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 현장집중교육, 선정단체 컨설팅 및 책임평가위원회 운영 등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선정단체(예술인) 워크숍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순천시립연향도서관 지하극장, 17일 오후 2시 전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전당, 2017년 상반기 ‘ACC 아카데미’ 개강

‘사랑’과 ‘아시아’ 테마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7년 상반기 ‘ACC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인문 강좌를 비롯해 문화예술 전문강좌,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시즌은 ‘사랑’과 ‘아시아’를 테마로 다양한 강좌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문화예술 강좌는 음악, 미술, 문학, 영화 등 모두 9개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강의가 함께하는 ‘라이브 클래식’과 ‘음악순례-에니메이션

선에서 현대음악까지’, ‘시네마 전국-사랑에 대한 모든 것’(김경욱·김형석·이상훈), ‘현대적 고전을 찾아서-사랑과 문학’(최진석·복도훈·문강형준) 등은 세번째 시즌을 맞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또 김영숙씨가 진행하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사 이야기’,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 夜’ 강좌는 매달 주제를 정해 열린다. 4월에는 ‘인문적 인간을 위한 문학(고영지 문학평론가)’이 열리며 ‘아시아, 그곳의 음악(5월·현정재 음악평론가)’, ‘영화는 미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6월·한창호 영화평론가)’가 기다리고 있다.

인문 강좌는 아시아 사상의 근원을 탐

구하는 ‘동아시아 철학(이기동 철학자)’, ‘문화적 상상력의 뿌리를 찾아서(이향준·양진호 철학자)’, ‘고전읽기: 혼돈의 시대에 장자(莊子)를 읽다(전호철 철학자)’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미술관에 가고 싶어지는 미술사 이야기’(김영숙)와 ‘일상의 예술, 디자인과 공예 이야기’(김신 등)가 새롭게 시작된다.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험 강좌도 열린다. ‘그림책 스튜디오(이지원)’,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이인수)’, ‘미디어아트 스튜디오(안매이크랩)’ 등이다.



김진명 소설가 한창호 영화평론가

5월에는 명사 초청 특별 강연(무료)도 진행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의 소설가 김진명을 비롯해 소설가 한승원, 연극배우 손숙 등이 참여한다.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18만원부터 4만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ACC 공식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재청,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8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해녀’는 한국 전통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하며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한

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중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단, 물질작업이 협업 형태인 공동체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CBS 성경암송 캠페인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하라” 출13:9

암송성경

1189

제작

- *참가자격 교회 또는 기독교 기관(인원 제한 없음)
- *마감 선착순
- *암송범위 1팀 1장
- *암송방법 지정 형식 없음(일반, 노래, 율동 등 표현방법 자유)
- *암송기한 암송범위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 *참가비 없음
- *암송촬영방법 ①교회 또는 기관에서 자체 촬영하여 CBS 전용서버로 업로드 단, 자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CBS 제작팀과 협의 ②촬영기기: 지정 없음(핸드폰, 캠코더 등 자유)

<암송성경1189>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정신을 살려 1,189장으로 구성된 성경을 교회별로 1장씩 암송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만드는 디지털영상성경입니다.

특전

- 01 디지털 암송성경은 독일 및 한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봉헌
- 02 박물관 및 기념관 특별전시(독일, 한국)
- 03 참가자는 'CBS 청소년 기자단'으로 활동
- 04 기네스북 등재(도전)

유년시절 암송한 성경구절은 일생을 선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CBS는 전 세계 다음세대와 함께 성경암송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CBS와 함께하는 <암송성경1189> 제작에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CBS 홈페이지 www.cbs.co.kr

문의전화 02)2650-7936, 7937